

# 무정의 정치노선 연구

## 안 문 석\*

- I. 머리말
- II. 무정의 정치노선 형성 과정
- III. 무정의 정치노선
- IV. 맺음말

### 국문요약

이 논문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당시 주목할 만한 활약을 벌였고, 해방 직후 북한지역에서 김일성 못지않은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면서도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무정의 정치노선을 집중 탐구한다. 무정은 중국공산당에서 오랫동안 항일투쟁을 했고, 북한에 들어가 당과 군에서 활동했지만,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자라기보다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다.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보다는 민족의 완전한 독립이 우선이라고 여겼다. 그가 중국공산당의 2만 5천리 대장정에 뛰어들고, 팔로군의 간부로 오랫동안 활약한 것도 '중국의 승리를 통한 조선의 독립'이라는 목표를 향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팔로군의 포병여단장이 되어 중국공산당에서 나름의 위치를 확보한 뒤에는 한인들을 규합해 대일투쟁에 나섰다. 해방 후 김일성과 맞선 것은 소련을 등에 업고 권력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의 민

족주의 노선은 소련이라는 외세도, 외세의 지원을 받고 있던 김일성도 배격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그의 철저한 민족주의는 김일성과의 경쟁·권력투쟁의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무정은 또한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모든 세력, 모든 계급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며 민족통일전선을 내세웠고, 대일투쟁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도 꼭 필요한 것으로 주장했다. 그는 또한 철저한 공동체의를 지니고 있었고, 이는 식량의 균등분배와 같은 형식적 평등주의로 표현되기도 했다. 민족의 통일과 관련해서는, 전쟁을 피하면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제어:** 무정, 철저한 민족주의, 민족통일전선론, 국제연대주의, 형식적 평등주의, 평화통일론

\*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I. 머리말

해방정국은 다양한 세력이 백가쟁명 식으로 다양한 이념과 노선을 제가, 실현하려는 ‘격렬한 노선투쟁’의 공간이었다. 해방 직후 북한지역도 마찬가지이었다. 민족주의세력, 국내공산주의세력, 김일성의 만주파, 소련군과 함께 들어온 소련파, 중국에서 귀국한 연안파 등이 심한 노선경쟁을 벌였다. 해방 직후 김일성 못지않은 명성을 얻었던 무정은 그러한 경쟁의 와중에서 김일성세력에 패해 한국전쟁 중 숙청되었다. 패자였고, 숙청된 자였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가 설 자리는 없었고, 그에 대한 기록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비중 있는 독립운동가이었음에도 북으로 간 공산주의자 무정에 대한 남쪽의 관심도 미미했다. 그가 숙청된 구체적 원인이 무엇인지, 숙청의 과정에서 연안파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그의 숙청이 이후 북한체제형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도 그래서 미진한 상태로 남아 있다. 그가 어떤 이념과 노선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되어 있지 않다.

무정의 궤적은 지금의 대한민국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일제강점기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 팔로군에서 주요 간부로 활동했고, 해방 후 북한정권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외양만으로 그를 평가한다면 완전한 것이 되기 어렵다. 그가 중국공산당의 2만 5천리 대장정에 뛰어들고, 옥수수죽에 산나물 한쪽으로 연명하면서 항일전쟁에 나서 신산을 겪은 것이 공산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조선의 독립을 위한 것이었는지 깊이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또, 그가 해방 후 김일성과 협력보다는 경쟁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 단순한 권력투쟁이었는지, 아니면 소련과의 관계 설정에 얽힌 정치노선 싸움이었는지, 역시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는 해방 직후 북한지역에 존재했던 다양한 세력의 다양한 이념과 노선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국가건설 전략을 둘러싼 제세력의 경쟁 양태도 보다 깊이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현재의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연장선상에 존재하고, 김일성 정권은 해방직후의 다양한 노선 경쟁의 과정 위에 형성된 만큼, 당시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 북한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일의 기반 형성은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의 넓은 기반을 형성하는 데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무정에 대한 연구는 아주 드물다. 더욱이 1945년 12월 입북 이후 그의 활동에 대한 조명은 찾기 어렵다. 북한에서 숙청된 인물이기 때문에 북한에도 남아있는 자료가 없고, 공산주의자이면서 북한군의 고위 장성으로 6·25전쟁에 가담한 인물이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무정의 독립운동에 대한 조명은 한홍구,<sup>1</sup> 한홍구·이정식,<sup>2</sup> 스칼라피노·이정식,<sup>3</sup> 김준엽·김창순<sup>4</sup> 등의 연구에 의해 상당부분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그의 북한에서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몇몇 저술과 연구결과물에서 해방 이후 무정의 활동과 북한에서의 역할이 파편적으로 조명된다. 김창순과 한재덕은 해방직후 무정과 주변 인물들 그리고 무정-김일성의 경쟁관계에 대해 보고들은 것을 기록으로 남겨 연구에 좋은 참고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sup>5</sup> 다만 이들의 저술은 개인적인 소견들도 함께 적고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기록과는 구분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기광서는 해방직후 소련군정이 무정을 일부는 긍정, 일부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소련문서를 통해 확인해주었다.<sup>6</sup> 이종석은 무정이 해방직후 연안파 세력을 공고하게 결집시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sup>7</sup> 그리고 6·25전쟁 당시 김일성-무정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상당부분 밝혀주었다.<sup>8</sup>

중앙일보가 북한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에 대한 인터뷰를 정리해 내놓은 저술은 무정이 해방 직후 북한에서 연안파의 최고지도자로 떠오르지 못한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주고 있고,<sup>9</sup> 서동만은 북한군 형성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군 건설에 대한 무정의 역할을 일부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sup>10</sup> 장준익은 전 조선인민군 고위인사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초기 북한군에서 무정이 가졌던 지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sup>11</sup> 이와 함께 심지연의 조선신민당과 연구와 정병일의 연안

<sup>1</sup> 한홍구, 『화북조선독립동맹의 조직과 활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sup>2</sup> 이정식·한홍구 엮음, 『조선독립동맹 자료 I: 항전별곡』 (서울: 거름, 1986).

<sup>3</sup> 스칼라피노·이정식 저, 한홍구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 2 (서울: 돌베개, 1986).

<sup>4</sup>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5 (서울: 청계연구소, 1986).

<sup>5</sup> 김창순, 『역사의 증인』 (서울: 한국아세아반공연맹, 1956); 김창순, 『북한15년사』 (서울: 지문각, 1961); 한재덕, 『김일성을 고발한다』 (서울: 내외문화사, 1965).

<sup>6</sup> 기광서, “해방 후 김일성의 정치적 부상과 집권과정,” 『역사와 현실』, 48 (2003).

<sup>7</sup>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 2000), pp. 406~411.

<sup>8</sup> 이종석, “한국전쟁 중 중·조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 『군사』, 제44호 (2001).

<sup>9</sup> 중앙일보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서울: 중앙일보사, 1992).

<sup>10</sup>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북한군 형성사는 pp. 250~279.

<sup>11</sup>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파에 대한 연구는 각각 조선신민당의 창당과정, 연안파의 활동과 갈등에 대한 세밀한 설명을 통해 무정의 노선을 이해하는 데 많은 참고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sup>12</sup>

하지만 이들 연구는 무정에 대한 독립적 심층 연구 아니다. 그런 만큼 그의 북한에서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명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노선을 명징하게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무정을 깊이 조명하는 방안의 하나로 그가 주장했던 정치노선을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II. 무정의 정치노선 형성 과정

무정은 일제강점기 서울에서 청년운동에 투신하고 3·1운동에도 참가했다. 당시 무정의 관심은 민족이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나는데 일조하는 것이었다. 18살이던 1923년 사회주의 계열의 서울청년회에 가입하면서 좌파활동을 시작했다. 여기서 활동하면서 무정은 강택진, 김영만, 이영, 현칠종 등 공산주의자들과 친분관계를 형성했다. 무정은 서울청년회에서 활동하면서 조선의 모든 청년단체가 참여해 민족의 활로를 모색하는 ‘전조선청년당대회’ 개최, 자본가 계급 옹호에 주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던 조선청년연합회와 동아일보에 대한 반대운동 등을 전개했다.<sup>13</sup> 무정이 중국공산당의 팔로군 포병여단장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이력서에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서울에서 청년운동을 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옥살이를 했다.<sup>14</sup> 10대부터 민족주의 및 좌파활동을 함께 한 것이다.

무정은 노동자와 농민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조선노동대회를 준비하던 중 1923년 10월 5일 체포되었다가 10월 말 석방된 뒤 곧 중국으로 망명했다. 중국으로 망명하게 된 데에는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여운형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sup>15</sup> 무정은 1924년 바오딩(保定)에 있는 바오딩군관학교 포병과를 입학해 같은 해 졸업했고,<sup>16</sup> 1925년 6월에는 중국공산당에 입당했다.<sup>17</sup> 이때부터 공산

<sup>12</sup> 심지연, 『조선신민당 연구』 (서울: 동녘, 1988).; 정병일, 『북조선 체제성립과 연안파 역할』 (서울: 선인, 2012).

<sup>13</sup> 이향숙, “무정의 중·한연대 항일혁명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월례발표회 (2007.5.12) 발표 논문, pp. 5~7.

<sup>14</sup> 幹部履歷表(武亭), 중국 중앙 당안관 자료, 연도미상, p. 2.

<sup>15</sup> 립선옥, “전설적 영웅 무정 장군,” 김호웅·강순화, 『중국에서 활동한 조선-한국 명인 연구』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2007), p. 517.

<sup>16</sup> 김순기, “무정장군에 대한 이야기,” 『중국의 평활한 대지 위에서』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87), p. 1.

<sup>17</sup> 幹部履歷表(武亭), 중국 중앙 당안관 자료, 연도미상, p. 1.

주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중국공산당 입당 당시에도 조선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던 여운형의 도움이 컸다.<sup>18</sup> 1차 국공합작 시기(1924.1.~1927. 7.)인 1926년 국민당군에 편성되어 활동했지만 곧 회의를 느끼고 이듬해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으로 가 공산당 활동에 본격 참여하게 된다. 외국군의 철수와 외국과의 불평등 조약 철폐 등을 외치는 노동자·농민의 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중국에 온 지 2년 만에 공식적으로 중국공산당 당원이 되어 공산주의 활동에 적극 나선 것이다.

1928년 여름 무렵부터 무정은 상하이에 있는 중국공산당 장쑤성(江蘇省)위원회 파난(法南)지부 소속의 조선인지부에서 활동했다. 조봉암이 지부서기, 여운형이 부서기였다. 무정은 최창익, 오명, 홍남표 등과 함께 지부위원이었다. 1925년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이 창당되어 상하이에도 지부가 설립되어 있었는데, 코민테른의 일국일당의 원칙에 따라 중국공산당의 하부조직으로 통일된 것이었다. 상하이에서 무정은 주로 좌파단체들을 묶어서 연합체를 형성하는 데 관심을 갖고 활동했다. ‘중국본부 조선청년동맹 상해지부’ 결성에 집행위원으로 적극 참여했고, 1929년 10월 유호(留滬. 상하이)한국독립운동자동맹을 결성하는 데 맹원 53명 가운데 하나로 참여했다. 1920년대 말 무정은 중국에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을 꾀한 것이다.

무정은 이와 함께 반제국주의 국제연대활동도 전개했다. ‘상해반제동맹과 상해청년반제동맹’에 참여해 중국과 조선, 대만의 연대를 통한 반제국주의 운동을 펼쳤다. 1929년 7월에는 ‘동방피압박민족 반제동맹대회’에 참가해 동방피압박민족 및 피압박 계급의 단결과 중국혁명에 대한 적극 참가를 결의하기도 했다. 중국내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을 위한 운동과 함께 주변국 좌파세력과의 연대, 즉 국제연대주의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1930년 초 무정은 중국공산당 조직의 소개를 받아 장시성(江西省) 증공소비에트 지역으로 들어갔고, 그 해 6월 상하이에서 열린 소비에트 지역대표대회에 참가했다. 행사 중에 홍군 제5군 정치위원인 등대원(滕代遠)을 알게 되었고, 그의 소개로 후베이성(湖北省) 양신(陽新)에 있던 제5군 군장 평더화이(彭德懷)를 만나게 되었다. 이후 무정은 남다른 무공을 세우면서 홍군의 포병장교로 활약했다.

1934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중국공산당의 대장정에 참여해 평더화이, 마

<sup>18</sup> 신한청, “무정장군,” 『중국관내조선인민 항일구국운동과 조선의용군』, 1992, p. 945, 이향숙, “무정의 중·한연대 항일혁명 활동에 관한 연구,” p. 9. 재인용.

오쩌둥 등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 조선인으로 대장정에 참여해 살아남은 사람은 무정과 양림 두 사람뿐이었다. 하지만 양림은 1936년 2월 산시성의 군벌 옌시산(閻錫山)의 군대와 전투를 하던 중 사망해 대장정에 참여한 뒤 중국공산당군에서 활동한 조선인은 무정이 유일했다. 중국공산당이 옌안(延安)에 도착한 이후 무정은 중국공산당의 고급간부 교육기관인 항일홍군대학에서 정치경제학, 소련공산당사 등을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고, 1938년 팔로군에 포병여단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 무정이 초대 여단장에 임명되었다.

팔로군의 포병여단장으로 활동하면서 한편으로는 화북지역의 조선청년들을 항일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1939년 1월 무정은 섬북조선청년연맹편지의 작성과 발표를 주도해 관내 한인들에게 항일전선 동참을 호소했는데, 이를 계기로 많은 한인청년들이 중국인민항일군정대학에 지원해 정치와 군사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무정은 한인투쟁단체 조직에도 적극 나섰다. 한인단체를 조직해 중국공산당과 유기적 연계 속에서 대일투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1940년 5월부터 이 작업이 본격화되어 1941년 1월 화북조선청년연합회를 창립해 회장을 맡았다. 이 단체는 좌우익을 모두 망라한 연합전선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한인들이 단결해 공동으로 항일전선에 나서도록 하는데 이 단체의 목적이 있었다. 좌우익을 아우르는 단체의 조직은 무정이 공산주의 운동 자체보다는 조선의 독립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42년 7월 화북조선청년연합회는 화북조선독립동맹(독립동맹)으로 개편되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어 독립동맹의 군사조직이 되었다. 무정은 조선의용군의 사령관을 맡아 한인들을 군사적으로 훈련시킨 뒤 1945년 8월 해방이 될 때까지 일본군을 상대로 많은 전투를 수행했다.

일제가 패망한 뒤 무정은 조선의용군을 이끌고 귀국하려 했지만, 소련군의 반대로 조선의용군을 만주에 둔 채 개인자격으로 북한으로 들어갔다. 무정은 귀국 직후 열린 1945년 12월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간부 부장이 되었다.<sup>19</sup> 입북 초기 그는 황해도 지역에서 '위대한 아버지'로 불리기도 하면서 큰 명성을 누리기도 했다. 옌안에서 함께 귀국한 박일우와 김창만, 허정숙 등이 곧 김일성 세력과 결합했지만 무정은 김일성과 거리를 두면서 활동했다. 김일성을 지원하는 소련과도 거리를 두었다. 소련을 배격해야 할 외세로 보고, 현

<sup>19</sup> 중앙일보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p. 162.;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p. 87.

실적인 강대한 세력으로서의 소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의 인 성향은 스스로를 당 권력에서는 차츰 밀려나게 만들었다.

무정은 대신 군 창설에 관여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최용건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역시 여기서도 김일성과와 소련파에 점차 밀려나지 않을 수 없었다. 6·25전쟁계획을 작성하는 작업은 김일성과와 소련파가 주도했고, 무정은 배제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당시 전선사령부의 포병국장은 김봉률이었고, 무정에게 주어진 임무는 없었다.<sup>20</sup> 전쟁 초기 작전에서 제2군단이 제대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자 군단장 김광협이 해임되고 무정이 임명되었다.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군의 대대적인 후퇴 국면에서 무정에게 평양방어사령관의 직책이 주어졌다. 무정은 막강한 화력을 지닌 유엔군을 막지 못했고, 12월 2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대대적인 비판을 받은 뒤 전격 연행되어 감금되었다. 명령대로 전투를 조직하지 못했고, 후퇴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 없이 사람을 총살했다는 죄목이었다. 이후 무정은 신병치료를 받다가 1951년 11월 인민군 39호병원에서 사망했다.<sup>21</sup>

무정의 삶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10대 당시 서울에서 청년운동을 하고 여운형을 만나게 되면서 사회주의를 알게 되었고, 이후 중국으로 망명해 중국공산당에 가입하면서 공식적으로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이후 그는 줄곧 공산주의자로 살았다. 팔로군의 포병단장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인단체를 조직, 운영하는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는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념을 가진 한인들을 한데로 묶어 항일전선을 형성하려는 민족통일전선론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일 투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강조했다. 해방 후 북한에서 활동할 당시에는 소련의 북한지배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소련 배경이 무정의 중심 화두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족문제에 대한 그의 고민은 철저한 민족주의와 평화통일론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고, 항일투쟁 당시의 공동체생활 경험은 그로 하여금 누구나 똑같이 분배를 받아야 한다는 형식적 평등주의를 주장하도록 한 것으로 여겨진다.

<sup>20</sup> 유성철, “피바다의 비화,” 『고려일보』 1991.5.31,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p. 381 재인용.;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서울: 고려원, 1990), pp. 248~249.

<sup>21</sup> 윤재인(동북조선의용군 출신. 조선인민군 8호후방병원 군사지도원)의 증언, 베이징대 한반도연구센터 소장 자료.

### III. 무정의 정치노선

#### 1. 철저한 민족주의

무정이 지향하던 노선 가운데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이 민족주의이다. 해방 직후 북한에서의 경쟁자 김일성도 독립운동 경력과 함께 민족주의적 노선을 지향하고 있었지만, 무정은 김일성보다 철저한 민족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었다. 무정이 김일성과 갈등, 반목하게 된 데에는 그들 사이의 이러한 차이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 귀국해 북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조국의 독립을 침해하고 간섭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대포를 쏘아 목사발을 만들 것이다. 그것이 설사 공산주의 국가일지라도 말이다”라고<sup>22</sup> 연설한 데에서 그의 철저한 민족주의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 무정에게는 조국의 완전한 독립이 공산주의보다 앞서서 가치였던 것이다. 민족의 독립과 완전한 자치가 무정 정치노선의 토대를 이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무정은 귀국 직후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의 간부부장이 되어 북한지역에서 본격적인 공산주의 활동을 하면서도 남한에서 결성된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 위원회’의 중앙위원이 되었는데, 이 또한 자주와 독립을 최우선적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외신으로 서울에 전해진 것은 1945년 12월 27일었는데, 다음날인 28일 남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반탁운동에 들어갔다. 이날 밤에는 정당과 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구성했다. 29일에는 위원회의 조직이 구성되고, 30일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76인의 중앙위원이 선정됐다. 북한에 있는 좌익계열의 인물을 포함해 76명이 중앙위원으로 선정된 것인데, 무정도 그 중 하나였다.<sup>23</sup> 북한의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12월 30일쯤 찬탁으로 돌아섰고, 남한의 좌익인사들도 1946년 1월 2일부터는 찬탁 입장이 되었다. 소련으로부터 찬탁 지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sup>24</sup> 무정도 북한에 있었던 만큼 실제로 반탁운동을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무정이 해방된 조

<sup>22</sup> 民族問題研究會 編, 『朝鮮戰爭史: 現代史の再發掘』 東京: コリア評論社, 1967, pp. 3~32., 사사키 하루다카(佐佐木春隆) 저, 강창구 편역, 『한국전비사 中卷: 기나긴 4일간』 (서울: 병학사, 1977), p. 20 재인용.

<sup>23</sup> 『서울신문』 1946.1.1.,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비운의 역사현장 아! 경교장』 (서울: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1993), p. 255 재인용.

<sup>24</sup>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1), pp. 266, 318.

국이 다시 다른 나라의 신탁통치를 받는 것에 대해 애초에는 반대했음을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중앙위원 선정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해방 직후 조선의용군을 서울까지 진주시켜 시가행진을 벌일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남북한이 각각 군대 건설에 나설 때에는 ‘국방군이건 인민군이건 다 민족의 군대이기 때문에 서로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up>25</sup> 남북한은 한 민족이고 서로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단순하면 서도 근본적이고 철저한 민족주의가 무정의 기본적인 노선이었다.

미군정의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무정은 한국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싶어 했지만 ‘한국만의 공산주의’(communism for Korea only)를 갈망했다. 김일성과 경쟁하면서 그가 가지게 된 불만은 두 가지이었다. 하나는 소련의 점령, 다른 하나는 성에 차지 않는 직책이었다.<sup>26</sup> 소련이나 다른 나라에 의해 이식되고 지원되는 형태의 공산주의는 원하지 않았다. 그런 점 때문에 그는 스탈린의 내정간섭에 반대 하며 독자적 사회주의를 추구한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와 유사한 존재로 인식되기도 했다.<sup>27</sup> 직책과 관련해서 무정은 스스로가 북한의 인민위원장이나 인민군 사령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sup>28</sup> 하지만 소련은 김일성을 선택했고, 무정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소련을 등에 업고 자신의 지배체제를 공고화 해갔던 김일성과 무정의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미군정 정보보고서는 김일성 세력과의 권력투쟁에서 수세에 몰려있던 무정이 소련 철수 이후에 북한정부 전복을 시도하려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sup>29</sup> 무정이 실제로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면 이는 소련에 의해 이식된 공산주의체제 척결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일성과의 경쟁의식에 기반 한 그의 집권욕구도 작용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의 철저한 민족주의 의식이 근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이 처한 환경에서 소련을 비판하는 어려웠다. 당시 북한사회에서는 조선의 발전보다는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세계사회주의혁명의 완성이 우선시되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식민주의를 몰아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련을 지지해야

<sup>25</sup> 최태환·박해강, 『젊은 혁명가의 초상: 인민군장교 최태환 중좌의 한국전쟁 참전기』 (서울: 공동체, 1989), p. 50.

<sup>26</sup> 『G-2 Weekly Summary』, HQ, USAFIK, 6 August 1948~13 August 1948, p. 33.

<sup>27</sup> 『G-2 Periodic Report』, HQ, USAFIK, 2 February 1949. p. 4.

<sup>28</sup> 『G-2 Weekly Summary』, HQ, USAFIK, 6 August 1948~13 August 1948, p. 13.

<sup>29</sup> 『G-2 Weekly Summary』, HQ, USAFIK, 6 August 1948~13 August 1948, p. 33.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무정 숙청’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한다는 주장이 당시 북한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소련과 스탈린에 대해 경의를 표하지 않는 것은 불온시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정은 소련지배를 반대하고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공개적으로 표현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미군정이 파악하고 있을 만큼 그의 반소련 입장은 알려져 있었다.

무정은 중공군 휘하에서 조선의용군을 운용하면서도 중국공산당의 도움에만 의지하지 않고 식량과 생필품 등 필요한 것을 스스로 생산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러한 무정의 방침은 생산활동보다는 군사훈련과 정치학습에 시간을 써야한다는 최창익의 노선과 충돌하기도 했다. 먹고 쓰는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무정의 생각은 자력갱생의 정신에서 온 것이었다. 민족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력갱생의 전통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는 의식이었다.<sup>30</sup> 이러한 의식은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한 민족의 독립과 자립을 실현하려는 철저한 민족주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1941년 화북조선청년연합회 창설 당시의 강령도 “일본제국주의 하의 조선통치를 전복하고 조선민족의 독립된 자주공화국을 건설할 것”이라며 독립과 민족자주를 강조했다. 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당시 연합회는 이념적 지향을 불문하고 중국 화북지방에 있는 한인청년들을 한데로 모아 조선의 독립을 위한 운동을 본격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었다.<sup>31</sup>

무정이 6인 중앙상임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여한 화북조선독립동맹도 ‘전국민의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정권의 수립,’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 사상, 태업의 자유 확보’ 등을 핵심강령으로 내세우면서 부르주아민주공화국 수립을 제1 목표로 삼고 있었다. 또한 이를 위한 전 조선민중의 반일투쟁을 주요 행동 강령으로 가지고 있었다.<sup>32</sup> 이 단체는 한 계급의 기초 위에 건설된 계급정당이나 한 계급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긴 존재가 아니라 “조선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조직된” “반일민족통일전선의 성질을 갖는 균중적 혁명단체”이었다.<sup>33</sup>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비공산주의자도 포함하고 있으면서,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민족주의적 조직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무정은 화북조선독립동맹이 결성되기 훨씬 전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활동을 생각하고 있었다. 홍군과 팔로군에서 정열을 바쳐 항일투쟁을 한 것

<sup>30</sup> 염인호,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p. 221.

<sup>31</sup>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5 (서울: 청계연구소, 1986), p. 104.

<sup>32</sup> 위의 책, p. 130.

<sup>33</sup> 최창익, “연안시대의 독립동맹,” 『독립신보』 1946.5.25., p. 2.

도 중국독립을 거쳐 조선의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1937년 1월 연안에서 서회를 만났을 때 분명하게 피력되었다. 무정은 당시 한인 청년들을 중국공산당군으로 끌어들여 군사이론과 군사기술을 배우게 해서 추후 조선독립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34</sup>

당시 중국에 건너간 많은 한인청년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갈 곳을 몰라 방황하고 있었다. 그래서 무정은 서회, 진광화, 성치백 등과 함께 신문에 글을 발표해 조선청년들에게 항일을 호소하고, 홍군 근거지로 찾아와 혁명과 군사를 배울 것을 역설하기도 했다.<sup>35</sup> 궁극적인 목표를 조선독립에 두고 있는 그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1940년대 구체적으로 한인단체활동을 하기 이전부터 분명했음을 이러한 사례를 통해 여실히 알 수 있다.

무정은 해방 후 북한에 들어가 활동하면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자신이 원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무정이 평양에서 활동할 때 조카 김의식과 왕래가 있었는데, 그에게 자신은 원래 공산주의자가 아닌데 독립운동 하러 중국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연안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공산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sup>36</sup> 서울에서 청년운동을 할 당시까지는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도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다는 의미이다. 그의 중국 망명 과정과 망명 이후의 활동을 보아도 무정이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공부를 조기에 심층적으로 해서 공산주의자가 되고 그에 따라 중국공산당을 찾아간 것은 아니다. 중국으로 망명해서 일제와 싸우는 길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당보다는 중국공산당에 끌려 그쪽에 참여한 경우이다. 무정은 국공합작 시기였던 1926년 국민당군에 참여했다가 국민당의 행태에 회의를 느꼈고, 1927년부터 공산당 활동에 적극 참가했다. 이념보다는 한인들에 대한 태도, 조선독립에 대한 관심 측면에서 공산당이 낫다고 판단해 중국공산당에서 적극 활동한 것이다. 이후 전투능력을 인정받아 중국공산당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공산주의자로 남게 된 것이다.<sup>37</sup>

전세계 공산주의 혁명활동을 지도하던 코민테른이 해체된 뒤 얼마 안된 시점인 1943년 6월 무정은 연안의 『解放日報』(해방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들

<sup>34</sup> 김순기, “조선의용군 사령 무정 장군,” 『항일투쟁 반세기』 (선양: 료녕민족출판사, 1995), p. 454.

<sup>35</sup> 위의 글, p. 455.

<sup>36</sup> 조규하 등, 『남북의 대화』 (서울: 고려원, 1987), p. 173.

<sup>37</sup> 『晉察冀日報』 1944.8.8., 우병국 외, 『북한체제 형성과 발전과정 문헌자료: 중국·미국·일본』 (서울: 선인, 2006), p. 75 재인용.

은 국제공산당이 해산된 후부터 각국의 혁명은 본국 공산당의 령도를 받아야 하는데 조선에는 공산당이 없으니 조선의 해방운동이 희망이 없게 되었다고 여긴다. 이런 견해는 옳지 않다. … 금후의 조선해방투쟁에서 조선혁명단체는 단결을 가일층 강화해야 한다. 단체끼리 단결하여 전 민족의 단결을 이룩함으로써 조선민족해방의 승리의 날을 앞당겨야 한다”라고 말했다.<sup>38</sup> 해방운동은 민족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결속해 이룩할 수 있는 것이고, 공산당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선독립동맹에서 윤합구(淪陷區, 일본 점령 지역)공작위원회 책임자로 활동하던 무정은 1945년 4월 국내로 공작원을 파견해 여운형과 연락을 취했는데, 여기서도 공산주의보다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당시 무정은 “조선에는 무산계급혁명단계가 아니고 공산당의 명칭을 가지고 나갈 단계가 아니므로 조직을 독립동맹이라 하고 진보적인 민주주의 강령을 제거(提擧)하였으니 앞으로 입국하여서도 건국동맹이라는 이념과 실천이 모든 점에서 완전히 합류된 것”이라는 내용을 여운형에게 전달했다.<sup>39</sup> 역시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국내의 세력과 합세해 민주적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메시지였다.

해방 후 1945년 12월 13일 북한으로 돌아온 조선독립동맹의 주역들은 한 달 정도 정세를 전망한 다음 자신들의 입장을 1946년 1월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신민당이 창당되기 전이었고, 무정도 조선독립동맹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 성명에서 조선독립동맹은 “우리는 일개인의 이익을 집단적 이익에 종속시키고 집단적 이익은 민족적 이익에 종속시켜야 할 것이다. 또 그리하는 한에 있어서만 각 개인의 이익은 단체의 이익과 일치할 것이며 각 단체의 이익은 민족의 이익과 부합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sup>40</sup> 개인도 단체도 민족의 이익 앞에서는 양보하고 희생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집행위원으로 조선독립동맹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던 무정의 생각을 일정부분 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무정은 김일성이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단계로 1946년 3월 전격 단행한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의 토지개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은 것으

<sup>38</sup> 『解放日報』 1943. 6. 16., 립순옥, “전설적 영웅 무정 장군,” 김호웅·강순화, 『중국에서 활동한 조선-한국 명인 연구』 (연갈: 연변인민출판사, 2007), p. 537에서 재인용.

<sup>39</sup> 『조선인민보』 1946. 8. 12., 심지연, 『조선신민당 연구』 (서울: 동녘, 1988), p. 40에서 재인용.

<sup>40</sup> 『조선동포에 고향: 독립동맹 귀국 제1성』, 『북한관계사료집』 3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9), p. 135.

로 보인다. 무정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비판을 받은 것이 1948년 3월 북조선노동당 제2차 당대회에서였는데, 그 이유가 무정이 황해도 토지개혁을 책임지고 있을 당시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몰수해야할 토지를 제대로 몰수하지 않고, 주지 않을 대상에게 토지를 분배했으며, 몰수당한 지주들이 계속 농촌에 남아서 농민을 억압하고 농민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도록 했다는 것이었다.<sup>41</sup> 북한의 토지개혁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첫째,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 아래 시행한다. 둘째, 몰수대상은 5정보(15,000평)이상의 지주 소유지로 한다. 셋째, 분배의 대상은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이다. 넷째, 분배의 기준은 농가별 가족노동력이다. 다섯째,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한다. 이 다섯 가지 내용의 토지개혁은 1946년 3월 8일~30일 3주간의 짧은 기간에 완료되었다. 그 결과 지주들의 토지 100만 325정보가 몰수되어 72만 4,522호의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분배되었다. 지주들의 반발이 없지 않았다. 지주를 이주시킨 것은 지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과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로당 제2차 당대회 당시의 비판 내용은 무정이 토지개혁의 다섯 가지 원칙 가운데 둘째, 셋째, 다섯째 원칙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토지개혁의 핵심 내용을 지키지 않았음은 그가 토지개혁에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당시 토지개혁은 북한 ‘민주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북한 사회주의체제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무정의 토지개혁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그의 관심이 사회주의 건설보다는 완전한 독립에 있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소련에 대한 비판적 인식,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참여, 공산주의보다는 완전한 독립을 우선시 하는 주장, 토지개혁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결국 무정의 정치노선의 중심에는 철저한 민족주의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2. 민족통일전선론

무정이 공산주의보다 민족을 앞세운 것은 독립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그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독립투쟁을 위한 통일전선의 형성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다.

<sup>41</sup> 『북조선로동당 제2차 당대회 회의록』, 『북한관계사료집』 I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2), pp. 359~360.

무정이 1941년 1월 화북조선청년연합회를 구성한 것은 통일전선 구축의 시작이었다. 1941년 7월 화북조선청년연합회 연안지부를 구성하는 자리에서 무정은 그동안의 민족해방운동이 단결정신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견 차이에 따라 무원칙하게 파벌투쟁을 해서 적을 돕게 되었다고 비판했다.<sup>42</sup> 이러한 비판의식에서 민족통일전선을 추진한 것이다. 연합회의 주요 참여자 가운데 윤세주, 박효삼 등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물론 중국공산당원도 아니었다. 이런 세력들을 모두 한데 모아 한인단체를 형성할 필요성에 따라 청년연합회라는 이념성이 약하고 포괄성을 지닌 명칭으로 단체를 구성한 것이다.

화북조선청년연합회가 화북조선독립동맹으로 개편된 이후 실제로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여러 시도들이 관찰된다. 우선 독립동맹은 통일전선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만주에서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하고 있던 조선의 용군, 한반도 내의 지하혁명조직을 상징하고 있었다.<sup>43</sup> 美전략정보국(OSS)도 독립동맹이 지하공작을 광범위하게 벌이면서 국내와 만주의 혁명그룹과 연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sup>44</sup>

특히 김구의 임시정부와의 연대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었는데, 독립동맹 진시베이(晋西北) 지부 창립대회에는 쑨원과 장제스, 마오쩌둥, 일본의 공산주의 지도자 카타야마 센(片山潛)과 함께 김구의 초상화도 걸려있었다.<sup>45</sup> 독립동맹이 우파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지를 인정하고 대화와 연대의 대상으로 여겼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화답으로 임시정부 국무위원 장건상이 연안으로 가서 임정과 조선독립동맹 사이의 통일전선 형성에 합의를 했고, 다시 이를 완결하기 위해 김두봉 독립동맹 주석이 충칭으로 가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1943년부터는 임정과 독립동맹·조선의용군 사이에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되었다. 1943년 3월 광복군 부사령관 김원봉은 독립동맹을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복원하고, 조선의용군은 광복군 제1지대로 개편하라고 명령했다. 1945년 1월에는 김원봉이 독립동맹 위원장 김두봉에게 편지를 보내 독립동

<sup>42</sup> 鐸木昌之, “잊혀진 공산주의자들: 화북조선독립동맹을 중심으로,” 이정식·한홍구 엮음, 『조선독립동맹 자료 I: 항전별곡』 (서울: 거름, 1986), p. 82.

<sup>43</sup> 위의 논문, p. 82. 여기서 조선의용군은 연안지역의 조선의용군과는 무관한 것으로, 김일성이 이끄는 무장투쟁조직을 이르는 것이다.

<sup>44</sup> 『Background for PW Against Koreans in Manchuria and North China』, RG226, Records of Major Field Offices and Bases of Operation 1940~49, Washington Registry SI Intelligence Field Files, Entry 108, Wash-Reg-Int-36, Box 163.

<sup>45</sup> 鐸木昌之, “잊혀진 공산주의자들: 화북조선독립동맹을 중심으로,” p. 83.

맹을 조선민족혁명당 화북지부로 개편하라고 요청했다. 1945년 4월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독립동맹에 임정의 대표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선의용군 사령관 무정은 김원봉에게 답장을 보내 “만약 혁명을 영도하고 싶으면 연안으로 오라. 그렇지 않으면 영도를 받을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sup>46</sup>

조선의용군과 독립동맹이 임시정부를 중앙조직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차츰 더 분명해졌다. 임정을 많은 독립운동단체 가운데 하나로 본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임정과 연대를 하는 경우에도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전선을 구축하려 했고, 통일전선 구축과정에서 독립동맹은 주도적 역할을 하려 했다.<sup>47</sup>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지만 독립동맹과 임정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독립동맹의 입장은 해방 후인 1946년 1월 조선인민보와의 회견에서 밝힌 무정의 의견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임정에 대해 두 가지 이유로 평가 절하했다. 첫째는 3·1운동 이후 국내의 혁명집단에 대해서 정권으로서의 지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윤봉길의 의거를 제외하고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실질적인 투쟁을 전개한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sup>48</sup> 임정과 연대는 초기에는 적극 시도되다가 점차 동력이 약화되는 양상이었다.

만주에 있던 김일성 항일조직과의 연대도 추진되었는데, 조선의용군의 전신인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1941년 7월 결성된 직후부터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화북과 만주, 조선의 혁명세력을 연합한 뒤 민족해방 반일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조선과의 연락을 취하면서 동시에 김일성과 협력을 도모한 것이다.<sup>49</sup>

또, 무정의 딸(중국인 처 텡치(藤綺)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텡엔리(藤延麗)는 1943년에 최용건이 연안에 직접 와서 무정을 만나고, 자신의 이름도 연안(延安)의 고려(高麗)인 이라는 뜻으로 최용건이 지어준 것이라고 증언했는데,<sup>50</sup> 이는 1940년대 무정과 김일성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최용건은 당시 소련의 하바로프스크에 있는 88여단의 부참모장(대위)을, 김일성은 88여단 제1영(營)의 영장(대위)을 맡아 여단 내 한인들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었다.<sup>51</sup> 이

<sup>46</sup> 추현수, 『자료 한국독립운동사』 2 (서울: 연세대출판부, 1972), p. 81.

<sup>47</sup> 정병준, “해방 직전 임시정부의 민족통일전선운동,” 한국근현대사학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 기념논문집』(하) (서울: 국가보훈처, 1993), p. 581.

<sup>48</sup> “무정장군 회견담,” 『조선인민보』 1946.1.14.

<sup>49</sup>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413~414.

<sup>50</sup> 중앙일보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pp. 142~143.

<sup>51</sup>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p. 404.

들은 당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들 둘과 김책을 포함한 3인의 긴밀한 관계는 이후 북한정권 수립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독립동맹은 국내 지하운동세력과의 연대도 다각도로 시도했다. 1944년 12월 독립동맹은 베이징에서 여운형의 국내지하조직인 건국동맹의 연락원 김영선과 접촉하기도 했고, 1945년 4월 건국동맹의 박승환이 여운형의 서한을 가지고 연안을 방문하기도 했다.<sup>52</sup> 여운형이 박승환을 연안에 보낸 것은 조선의용군의 국내진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여운형은 박승환과 함께 만주에서 군대를 양성해 백두산을 넘어 국내에 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여기에 연안의 조선의용군도 참여시켜 함께 국내진공 방안을 도모한 것이다.<sup>53</sup> 여운형은 1945년 5월에는 함경북도 종성읍의 최주봉을 만나 연안과 만주에서 동지들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면 숙소와 연락처를 정해주도록 하기도 했다.<sup>54</sup> 물론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지만 무정과 여운형이 협력해 조선인의 군대를 국내에 바로 진입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은 확인된다. 무정은 또, 김명시를 통해서 여운형과 연락을 취하기도 했고, 박헌영의 콤포그롭과도 연락책을 통해 연계를 추진했다.<sup>55</sup>

이러한 제휴에 대해서 무정과 독립동맹의 입장은 자신들이 중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국내의 독립운동세력과 연대를 통해 독립운동의 활성화를 꾀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세력 입장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해외 운동세력과 연대를 추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해방 후 1945년 11월 20일 조선인민공화국의 각 지역 대표들이 모여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가 열렸을 때 여운형이 조선인민공화국 설립에 대해 경과보고를 했다. 보고에서 여운형은 “만주침략, 중일전쟁, 후 2차전쟁 기간 중에 있어서는 직접무력으로 일본에 반항하여 투쟁한 김일성 장군을 중심으로 한 의병운동과 북지(北支)전선에서 활약한 최무정 장군의<sup>56</sup> 부대와 중지(中支)전선에서 이청천, 김원봉 장군을 중심으로 한 항일무력투쟁이 그 대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리하여 3·1운동으로부터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해외운동의 그 적극파는 주로 만주를 중심으로 하여 항상 국내운동의 지도 혹은 연락 하에 있었다”고 역설했다.<sup>57</sup> 독립동맹과 국내 독립운동세력이 연계를 형

<sup>52</sup> 鐸木昌之, “잊어진 공산주의자들: 화북조선독립동맹을 중심으로,” p. 83.

<sup>53</sup> 이만규, 『여운형선생투쟁사』 (서울: 민주문화사, 1946), pp. 171~172.

<sup>54</sup> 위의 책, p. 173.

<sup>55</sup> 중앙일보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p. 141.

<sup>56</sup> 최무정은 무정을 이르는 것이다. 무정은 때로는 최무정, 때로는 김무정 등으로 불렸다.

<sup>57</sup>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 의사록」, 김남식·이정식·한홍구 엮음, 『한국현대사 자료 총서』 12 (서울: 돌베개, 1986), p. 460.

성하고 있었지만 국내세력이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연안파의 입장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독립동맹과 국내세력의 연계는 여운형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정은 실제 통일전선을 실현하려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연설을 통해 통일전선을 강조했다. 1944년 8월 29일 국치일에 한 연설에서는 그동안의 독립운동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한인들의 분열을 가장 큰 과오로 지적했다. 즉, 한일합방 이래 독립운동이 국내외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크게 두 가지 잘못된 점이 있는데, 첫째는 인민을 단결시키지 못하고 국내의 노동자와 농민, 도시 소자본가계급의 역량에 주의하지 못한 점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둘째는 광범위한 군중에 대한 선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잘못으로 꼽았다. 테러위주로 독립운동을 했을 뿐 인민들에게 독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선전하고 인민들을 조직화하는 데는 관심을 쏟지 못했다는 지적이었다.<sup>58</sup>

해방 후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무정은 이 단체들이 이념과 관계없이 여러 세력이 모여 있는 조직이라며 통일전선의 성격을 강조했다. 1946년 1월 『조선인민보』와의 인터뷰에서 무정은 독립동맹의 성격에 대해 “독립동맹은 조선민족을 해방시키겠다는 정치적 기초강령 위에서 널리(널리) 민중을 토대로 하고 민중을 포섭 조직한 정치적 대중단체이다. 그것은 공산당은 아니다. 우에 말한 민족사업을 위하여 뜻을 가치한(같이한) 계급 단체를 모두(모두) 내포하고 있다. 공산주의자와 함께 불교신자, 천도교신자 등등이 있다. 의용군도 한가지로 대중적 무장세력이다”라고 밝혔다.<sup>59</sup>

무정은 토지개혁도 통일전선 차원에서 이해했다. 1946년 3·1절을 기념하는 『정료』 기고문에 그는 “토지문제의 정확한 해결은 통일전선에 있어 정확한 정책이 되며 조선사회 정치 경제 문화 건설에 민주적 발전을 촉진하는 관건이다. 암흑참담한 36년이 지나가고 제1차로 마지하는(맞이하는) 3·1기념을 구체적 실천에서 마지하려면(맞이하려면) 민주주의 조선 건립에 충실한 백성이 되기를 결심하고 맹서함에 있으며 당전의 중요한 과업실행에 전력만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썼다.<sup>60</sup> 토지개혁이 제대로 될 때 북한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 여타세력들을 국가건설과정에 적극 참여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토지개혁이 제대로 되지

<sup>58</sup> 『진찰기일보』 1944.9.8., 우병국 외, 『북한체제 형성과 발전과정 문헌자료: 중국·미국·일본』, p. 77 재인용.

<sup>59</sup> “무정장군 회견담,” 『조선인민보』 1946.1.14.

<sup>60</sup> 무정, “3.1을 기념하면서 노동자 농민에게,” 『북한관계사료집』 31, p. 304.

않을 때에는 이들을 정치·경제·사회 건설에 대한 적극적 참여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당시 북한사회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되던 것도 사회 제 세력을 아우르는 통일전선의 실현에 기여할 때 의미가 있음을 새삼 강조한 것이다.

무정과 독립동맹의 통일전선론은 신민주주의론에 기초한 연합정부론을 내세운 중국공산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민주주의론은 제국주의와 투쟁하는 단계에서는 자산계급을 포함한 여러 계급이 연합을 형성해 독재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sup>61</sup> 이 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형태가 연합정부이다. 다시 말하면 반민족적 세력을 제외한 여러 세력이 한 데 모여 통일전선을 이루고 이 세력이 연합정부를 형성해야 한다는 연합정부론이 항일투쟁 당시 중국공산당과 마오쩌둥 주장의 핵심이었다. 이 연합정부론은 먼저 일본을 타도하고 이후 전국의 절대다수 인민을 기초로 하여 민주적이고 통일전선적인 동맹에 의해 국가를 건설한다는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여러 계급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통치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에 영향을 받아 무정과 독립동맹은 항일투쟁 단계에서부터 노선과 계급 구분 없이 모든 반일본 세력이 모여 함께 항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기본 노선을 가지고 있었다.

### 3. 국제연대주의

무정은 혁명의 과정에서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실제로 실행했다. 중국공산당과 팔로군에 참여한 것부터가 개인차원의 국제연대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용군을 창설한 이후에도 팔로군 체계 속에서 운영했다. 당시 식민지 조선의 혁명가로 독자적인 행보보다는 강대한 세력의 도움을 확보한 채로 혁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1941년 창립된 화북조선청년연합회는 창립선언에서 무정은 “중국이 항전에 의하여 승리를 획득하게 되는 날이면 조선민족이 희구하는 해방도 획득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1944년 8월 8일 변구당정군민 8.1기념대회에서 기념사를 통해 조선혁명과 중화민국의 해방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역설하는 등<sup>62</sup> 기회 있을 때마다 조·중연대를 강조했다.

무정의 이러한 조·중연대 중시는 여운형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운형은 중국혁명과 조선해방을 다르게 보지 않았다. 중국혁명이 이루어지면 조선해

<sup>61</sup> 마오쩌둥, “신민주주의론(1940년 1월), 『모택동선집』 (베이징: 민족출판사, 1992), pp. 849~850.

<sup>62</sup> 『晉察冀日報』 1944.8.8.

방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63</sup> 그가 생각하는 중국혁명은 공산혁명이었다. 특히 여운형은 농민의 지지에 기초한 마오쩌둥의 혁명전략에 대해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다.<sup>64</sup> 이렇게 친중공노선과 ‘중국혁명=조선혁명’ 노선을 가진 여운형을 무정은 믿고 따랐다. 무정이 1944년경에 국내에 있던 여운형에게 연락을 취할 때는 “선생이 국내에서 혁명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색도 좋고 흑색도 좋다. 우리는 신뢰한다. 선생이 만일 혁명을 하다가 죽는다면 조선이 독립한 후 내가 귀국하여 시체라도 지고 3천리 강산을 돌아다니며 선전하겠노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 보내기도 했다.<sup>65</sup> 이러한 관계로 미루어 볼 때 무정의 조·중연대노선은 ‘중국혁명은 곧 조선혁명’이라는 여운형의 인식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무정은 중국과의 연대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피압박민족의 전반적인 연대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1927년 우한에서 열린 ‘반일대동맹회의’에 조선대표로 참가하기도 했고, 1929년에는 중국본부 조선청년동맹 상해지부에서 재정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중국, 한국, 대만으로 구성된 상해반제동맹과 상해청년반제동맹에 적극 참여했다. 이들 단체활동을 통해 아시아국가들이 연대해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몰아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1940년대 초반에는 항일독립운동과 함께 반파시스트 국제공조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무정은 ‘동방민족 반파시스트동맹’ 결성에 초기단계부터 적극 참여했다. 1941년 10월 ‘동방민족 반파시스트동맹’이 ‘아시아 각민족 반파쇼대표대회’를 연안에서 열었을 때 무정은 주더(朱德) 등과 함께 주석단에 선출되고 조선의 혁명투쟁에 대한 보고도 했다. 이 대회는 무정과 주더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 등 각 나라의 대표 130여명이 참석한 반제국주의 국제대회였다. 대회에서는 일본에 대해 공동으로 투쟁할 것과 동방각민족학원을 설립해 반파시스트 간부를 양성할 것을 결의했다. 12월 이 동맹의 집행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는 반파시스트 통일전선 수립을 강화할 것을 결의했고, 무정은 집행위 상무위원에 선출되었다. 항일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각 민족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대를 통한 세력의 강화를 적극 꾀한 것이다.

무정은 소련과의 연대도 꾀했는데, 1942년 스탈린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편지에서 조선의용군이 중국공산당과 연대해 대일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세계 반침략전선의 형성, 소련군의 대독·대일 전쟁의 승리에 대

<sup>63</sup> 이향숙, “무정의 중·한연대 항일혁명 활동에 관한 연구,” p. 11.

<sup>64</sup> 이만규, 『여운형선생투쟁사』, pp. 81~82.

<sup>65</sup> 위의 책, p. 121.

한 희망을 피력했다.<sup>66</sup> 조선-중국-소련 연대와 이를 통한 반파시스트 전쟁에서의 승리를 강조한 것이다.

무정의 국제연대 지평은 일본의 반제국주의 세력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미 1941년 화북조선청년연합회 강령에 “대만 민족해방운동을 찬조하고 일본인민의 반전운동을 찬성하며, 그로써 조선·대만·일본 인민의 반일연합전선을 결성할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sup>67</sup> 일본이라는 국가는 적대국이지만, 일본의 양심세력이나 반파시즘 세력과는 얼마든지 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조선의용군은 팔로군이 일본군포로들을 교육시켜 구성한 일본인반전동맹 대원들과 함께 일본군을 상대로 반전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선전전단을 같이 만들고, 석판 등사용지를 함께 굵기도 했으며,<sup>68</sup> 일본군을 상대로 염전사상(厭戰思想)을 퍼뜨리는 대적심리전, 부상병 치료활동, 위문활동도 함께 했다.<sup>69</sup> 일본제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일본의 일부세력과의 연합도 적극 벌인 것이다.

무정의 노선은 결국 중국혁명을 돕고, 소련과의 협력을 도모하면서, 여러 나라의 다양한 세력과 공동전선을 형성해 일본제국주의 세력을 타파해 최종적으로는 조선의 해방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 4. 형식적 평등주의

무정이 공산주의라는 이념보다는 독립운동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중국공산당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오랫동안 공산당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배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등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은 짐작할 수 있고, 또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가 북한에 들어간 이후 당과 군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한 언명들을 보면 그의 평등주의가 노동의 성격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똑같이 분배하자는 형식적 평등주의임을 알 수 있다. 식량배급문제에 대해 그는 배급이 직업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으로 식량을 배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련의 북한 식량 반출에 대해서도 반대했다.<sup>70</sup> 기본적

<sup>66</sup>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자료, 이향숙, “무정의 중·한연대 항일혁명 활동에 관한 연구,” p. 23, 재인용.

<sup>67</sup>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5 (東京: 原書房, 1967), p. 994.

<sup>68</sup> 和田眞一, “生死岐路,” 『從帝國軍人到反戰勇士』, p. 67., 한상도, “조선의용군과 일본인 반전운동집단의 관계,” 『한국근현대사연구』, 42호(2007), p. 27 재인용.

<sup>69</sup> 한상도, “조선의용군과 일본인 반전운동집단의 관계,” p. 27.

으로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식량을 배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소련의 식량반출을 반대한 것은 북한의 자산을 무단 반출하는 소련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식량의 평등 분배를 위한 자원의 확보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46년 1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결정 『식량배급에 관한 건』에 따라 식량배급을 실시했다. 노동자와 사무원 및 그 가족들이 대상이었다. 그런데 배급은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직업과 직종에 따라 1급에서 4급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되었다. 1급은 하루 700그램(g)의 식량을 받았는데 쌀이 420g, 잡곡이 280g이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은 탄광과 특수광산, 화학공장, 유색금속공장, 흑색금속공장, 시멘트공장, 조선소, 제염소, 기계제작소, 목재산업, 해상운송, 철도운송(기관사, 조수, 화부, 급수부, 전철수, 연락수), 보선구선로공부, 기관차수리공장의 기술자와 중노동자 등이었다. 2급은 하루 600g의 식량을 배급받았는데, 쌀 360g, 잡곡 240g이었다. 1급 중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 노동자와 기술자들이 2급으로 분류되었다. 3급은 하루 500g(쌀 300, 잡곡 200g)을 받았다. 국가행정기관, 정당, 회사, 소비단체, 대학, 중학교 등의 사무원과 교원, 학생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4급은 하루 180g의 쌀과 120g의 잡곡 등 모두 300g의 식량을 받았다. 여기에는 1, 2, 3급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부양가족이 해당되었다.<sup>71</sup>

이렇게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식량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 무정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무정이 완전 평등주의에 경도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그의 주장은 중국에서 항일활동 당시의 경험에서 형성된 ‘철저한 공동체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정은 중국 타이항산 지구에서 조선의용군을 이끌고 대일본투쟁을 하면서 대원들과 동고동락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당시 조선의용군은 자급자족의 원칙 아래 농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함께 했다. 지위의 상하구별 없이 누구든지 노동을 해야 했다. 토굴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산을 개간해 작물을 심어서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 수수밥이나 옥수수죽에다가 반찬으로는 산채를 소금에 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한 공동생활의 경험이 철저한 공동체의식과 기본적인 생활조건에 대한 차별금지 의식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동체 경험은 또한 무정으로 하여금 북한 국가건설 과정에서 노동자와

<sup>70</sup> 『G-2 Periodic Report』, HQ, USAFIK, 2 February 1949, p. 4.

<sup>71</sup> 『식량배급에 관한 건』, 『북한관계사료집』 V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7), pp. 360~361.

농민 생활의 향상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도록 했다. 무정은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임시인민위원으로서 밝힌 포부에서도 민주주의화 함께 노동자·농민의 생활 향상을 강조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민위원회의 주요임무는 철저한 민주주의를 실시하여 북조선인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의 생활을 적극 향상하여 전국적 정권건설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그 중에도 우리는 특별히 노동자, 농민의 생활을 적극 향상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이 전인구의 백분지 구십 이상이라는 절대다수를 점하고 또 그들의 생활이 말할 수 없이 곤란한 만큼 우리가 민족의 이익, 인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면 먼저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역설한 것이다.<sup>72</sup>

요컨대 무정은 모두가 똑같이 대우받는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노선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 먹을 것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았고, 사회의 기층을 형성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의 삶의 수준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 5. 평화통일론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도 무정은 간헐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남북한의 완전한 분단이전에는 다양한 세력이 연대해 조속한 남과 북의 민족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분단 이후에는 전쟁을 피하면서 대화와 평화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46년 1월 『조선인민보』와의 회견에서 그는 민족통일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어느 한 세력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여러 세력이 연대해 민중의 지지를 얻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73</sup> 무정이 당초 조선의용군 8만 명을 이끌고 서울로 들어와 시가행진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것도<sup>74</sup> 해방된 조국의 수도에서 대규모 군사적 시위를 벌이고 이를 동력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어보고 싶은 욕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정부수립 이전에는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던 무정은 남북한이 각각의 정부를 세운 이후에는 전쟁을 막고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

<sup>72</sup> 무정, “민주주의를 실시, 북조선인민의 생활 적극 향상: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무정동지 담,” 『북한관계사료집』 31, pp. 280~281.

<sup>73</sup> “무정장군 회견담,” 『조선인민보』 1946.1.14.

<sup>74</sup> 김성동, 『현대사 아리랑: 꽃다발도 무덤도 없는 혁명가들』 (서울: 녹색평론사, 2010), p. 240.

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949년 2월의 주한미군의 정보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부분이 발견된다. 남북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회담에 대해 무정은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무정이 이러한 입장을 가지게 된 것은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통일되기를 원하는 대다수 북한 사람들의 희망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75</sup> 1949년 초 당시 북한에는 크게 3개의 정파, 즉 김일성과와 박헌영파, 무정파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통일론과 관련해서는 김일성은 무력통일론, 박헌영과 무정은 평화통일론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일성도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남측의 인물들과 남북협상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 당시의 김일성을 무력통일론자로 단언하는 데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정이 남북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회담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은 보고서가 믿을 만한 소식통의 전언임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무정의 생각을 어느 정도 엿보는 데에는 참고가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당시만 해도 남북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남북한에 널리 퍼져 있었고, 북한에서도 분단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유엔한국위원회를 통해 통일을 이루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정은 남북한은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평화통일론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이념적 대립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또한 한국전쟁에 북한의 고위장성으로 참여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전쟁 전 기본적으로는 평화통일이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 IV.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대로 무정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자라기보다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다.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보다는 민족의 완전한 독립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중국공산당의 뛰어들고, 오랫동안 팔로군의 간부로 항일전쟁에 나선 것은 공산주의 이념의 실현보다는 독립을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팔로군의 포병여단장이 되어 중국공산당에서 나름의 위치를 확보한 뒤에는 한인들을 규합해 대일투쟁에 나섰다. 해방 후 김일성과 맞선 것은 소련을 등에 지고 권

<sup>75</sup> 「G-2 Periodic Report」, HQ, USAFIK, 2 February 1949, p. 4.

력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의 철저한 민족주의 노선은 소련이라는 외세도, 외세의 지원을 받고 있던 김일성도 배격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했다.

무정은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모든 세력, 모든 계급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의 철저한 공동체 의식은 식량의 균등분배와 같은 형식적 평등주의로 표현되기도 했다. 민족의 통일과 관련해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했다.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무정의 이와 같은 근본주의적 노선은 설 자리가 없었다. 미국과 소련이 전후 질서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제적 환경을 민첩하게 간파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치와 외교술을 발휘하는 전략가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김일성은 그런 전략가이었다.

무정은 중국의 도움을 기대했을지 모른다. 물론 일제가 패망한 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연안파가 북한에 들어가 정권을 장악하기를 기대했다.<sup>76</sup> 정권을 잡지 못한다면 북한사회에서 주요세력으로 자리 잡아 친중적이면서 반미적인 정권을 세우는데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바랐다.<sup>77</sup>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중국공산당은 1949년 10월까지 국민당과 중국본토를 두고 전쟁을 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사회주의 국가의 기틀을 잡는 데 여념이 없었다. 소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소련이 김일성을 내세워 북한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전략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무정이 김일성에게 숙청을 당하는 국면에서도 중국은 불쾌하게 생각하면서도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다.<sup>78</sup>

중국군은 무정이 군법회의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는 것은 막는 정도의 역할만 했다. 그래서 무정은 군법회의 대신 가택연금의 처분을 받았다.<sup>79</sup>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는 무정이 숙청 이후 위장병이 악화되자 중국으로 후송해 치료받게 하기도 했다. 그 정도이었다.

무정은 김일성과 같은 정치적 전략도 갖지 못한데다가 중국과 소련 사이의 역학관계 때문에 중국의 지원도 받지 못해 북한 역사에서 처연히 사라졌다. 해방 이후 외세를 완전히 배격하려 한 그의 철저한 민족주의 노선에 비추어 보면, 중국이

<sup>76</sup> 株德, “株德司令最勉朝鮮同志學習怎麼樣建立民族統一戰線,” 『解放日報』 1945.2.10., 서상문, 『모택동과 6.25전쟁: 파병 경정과 개입동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p. 278 재인용.

<sup>77</sup> 서상문, 『모택동과 6.25전쟁: 파병 경정과 개입동기』, p. 278.

<sup>78</sup>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2000), p. 209, 211.

<sup>79</sup> 박갑동 저, 구윤서 역, 『한국전쟁과 김일성』 (서울: 바람과 물결, 1988), p. 140.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 지원을 거절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 접수: 10월 19일 ■ 심사: 10월 20일 ■ 채택: 12월 4일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성동. 『현대사 아리랑: 꽃다발도 무덤도 없는 혁명가들』. 서울: 녹색평론사, 2010.
-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5. 東京: 原書房, 1967.
-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서울: 청계연구소, 1986.
- 박갑동 저, 구운서 역. 『한국전쟁과 김일성』. 서울: 바람과 물결, 1988.
-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비운의 역사현장 아! 경교장』. 서울: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1993.
- 사사키 하루다카(佐佐木春隆) 저, 강창구 편역. 『한국전비사 中卷: 기나긴 4일간』. 서울: 병학사, 1977.
-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 서상문. 『모택동과 6.25전쟁: 파병 결정과 개입동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 서종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1.
- 심지연. 『조선신민당 연구』. 서울: 동녘, 1988.
- 염인호.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우병국 외. 『북한체제 형성과 발전과정 문헌자료: 중국·미국·일본』. 서울: 선인, 2006.
- 이만규. 『여운형선생투쟁사』. 서울: 민주문화사, 1946.
-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2000.
- \_\_\_\_\_.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조규하 외. 『남북의 대화』. 서울: 고려원, 1987.
-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서울: 고려원, 1990.
- 중앙일보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서울: 중앙일보사, 1992.
- 최태환·박혜강. 『젊은 혁명가의 초상: 인민군장교 최태환 중좌의 한국전쟁 참전기』. 서울: 공동체, 1989.
- 추헌수. 『자료 한국독립운동사』. 2. 서울: 연세대출판부, 1972.

### 2. 논문

- 김순기. “무정장군에 대한 이야기.” 『중국의 광활한 대지 위에서』.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87.

- \_\_\_\_\_. “조선의용군 사령 무정 장군.” 『항일투쟁 반세기』. 선양: 료녕민족출판사, 1995.
- 림선옥. “전설적 영웅 무정 장군.” 김호웅·강순화. 『중국에서 활동한 조선-한국 명인 연구』.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2007.
- 마오쩌둥. “신민주주의론(1940년 1월).” 『모택동선집』. 베이징: 민족출판사, 1992.
- 이향숙. “무정의 중·한연대 항일혁명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월례발표회 (2007. 5. 12) 발표 논문.
- 정병준. “해방 직전 임시정부의 민족통일전선운동.” 한국근현대사학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 기념논문집』(하). 서울: 국가보훈처, 1993.
- 鐸木昌之. “잊혀진 공산주의자들: 화북조선독립동맹을 중심으로.” 이정식·한홍구 엮음. 『조선독립동맹 자료 I: 항전별곡』. 서울: 거름, 1986.
- 한상도. “조선의용군과 일본인 반전운동집단의 관계.” 『한국근현대사연구』. 42호, 2007.

### 3. 기타 자료

-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 의사록』. 김남식·이정식·한홍구 엮음. 『한국현대사 자료 총서』. 12. 서울: 돌베개, 1986.
- “무정장군 회견담.” 『조선인민보』. 1946.1.14.
- 『북조선노동당 제2차 당대회 회의록』. 『북한관계사료집』. I.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2.
- 『식량배급에 관한 건』. 『북한관계사료집』. V.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7.
- 『조선동포에 고함: 독립동맹 귀국 제1성』. 『북한관계사료집』. 3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9.
- 幹部履歷表(武亭). 중국 중앙 당안관 자료, 연도미상.
- 무정. “3.1을 기념하면서 노동자 농민에게.” 『북한관계사료집』. 3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9.
- \_\_\_\_\_. “민주주의를 실시, 북조선인민의 생활 적극 향상: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무정동지담.” 『북한관계사료집』. 3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9.
- 윤재인(동북조선의용군 출신. 조선인민군 8호후방병원 군사지도원)의 증언. 베이징대 한반도연구센터 소장 자료.
- 최창익. “연안시대의 독립동맹.” 『독립신보』. 1946.5.25.
- 『Background for PW Against Koreans in Manchuria and North China』, RG226, Records of Major Field Offices and Bases of Operation 1940~49, Washington Registry SI Intelligence Field Files, Entry 108, Wash-Reg-Int-36, Box 163.
- 『G-2 Periodic Report』, HQ, USAFIK, 2 February 1949.
- 『G-2 Weekly Summary』, HQ, USAFIK, 6 August 1948~13 August 1948.

## Abstract

### A Study of Moo Jung's Political Line

*Mun-Suk Ahn*

Though more than two decades have passed since the U.S. and North Korea agreed on the Geneva Agreed Framework in October 1994,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come more difficult to be resolved than before. In spite of international sanctions, North Korea has implemented three nuclear test explosions and successfully launched long-range missiles. The North Korean young leader, Kim Jung Un, declared a parallel policy of economic and nuclear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It is clear that North Korea has tried every efforts to miniaturize and possess various kinds of nuclear bombs. North Korean watchers in the U.S. warned in early this year that North Korea would hold more than 100 nuclear bombs and long-range missiles which can target the U.S. main land.

North Korea successfully possessed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capabilities by a strong political willingness of political leaders for more than two decades. The U.S. unfortunately could not focused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due to the war of anti-terrorism. Presidents Kim Dae Jung and Rho Mu Hyun, pursuing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believed that the North's nuclear development as means to negotiate with the U.S. The Presidents Lee Myung Bak and Park Keun Hye did not have opportunities to talk with the North due to continuous military provocations by the North. China provided an opportunity for North Korea to evade international sanctions imposed on the North by utilizing the nuclear issue to enhance its strategic position vis-a-vis the U.S.

After the Iranian nuclear negotiation reached an agreement,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pay attention to resolve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President Obama's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may not resolve the North's nuclear enigma.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will increase instability and nuclear domino in the region. Therefor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make every effort to denuclearize the North with such various measures as sanctions and pressure, political and economic support and compensation, measures to induce the North toward reform and openness, and so forth.

**Key Words:** Moo Jung, Radical Nationalism, National Unification Front, International Solidarity, Radical Equalitarianism, Peaceful Unification

